

시즌 첫 골, 첫 도움, 쇄기골 견인

지성 파워 '부활'

리그 2호 골...아스톤에 3-1 승

'파워 엔진'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마침내 시즌 첫 골을 작렬했다. 박지성은 14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2007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아스톤 빌라와 홈 경기에서 전반 11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논스톱 바운드 슛으로 네트를 갈라 선제골을 뽑았다.

지난 해 4월 10일 아스날전에서 골을 터트린 박지성은 9개월여 만에 이번 시즌 첫 골을 얻어낸 것.

잉글랜드 진출 이후 칼링컵을 포함해 통산 세 번째 골이다. 정규리그 득점은 지난 해 2월 풀햄전 첫 골이 자작골로 수정돼 아스날전에 이어 2호골이다.

박지성은 또 전반 13분 마이클 캐릭의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해 시즌 첫 도움을 기록했다.

맨유는 박지성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아스톤 빌라를 3-1로 꺾고 18승 3무 2패(승점 57)로 리그 선두를 짚어냈다.

부상 복귀 이후 최고의 활약이었다.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박지성은 전반 11분 오른쪽 윙박 캐리 네빌이 미드필드로 밀고 올라와 크로스를 올리자 페널티지역에서 볼을 잡아 원발 슛을 날렸다.

볼은 밀집 수비를 펼친 아스톤 빌라 수비수 리암 리지웰의 몸에 맞고

골결과 캐리 캐이힐이 걷어냈지만 박지성은 집중력을 잊지 않았다.

박지성은 캐이힐이 걷어낸 볼이 벗맞아 페널티지역 정면으로 흐르자 수비수를 앞에 두고 날카로운 오른발 슛팅을 다시 때렸다.

정확히 말에 걸린 볼은 그라운드에 맞고 비운드되면서 더 빨라져 대각선으로 네트 왼쪽 구석으로 훑혀들어갔다.

손가락 하나를 치켜들고 특유의 골 세리머니를 펼친 박지성은 2분 뒤 맨유의 추가골을 이끌어냈다.

박지성은 페널티지역 오른쪽 외곽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샌드 모션으로 찬스를 잡은 뒤 문전으로 뛰어들던 캐릭에게 칼날같은 패스를 연결했다. 캐릭은 볼을 트래핑한 뒤 오른발 슛으로 네트를 훑었다.

맨유의 세 번째 골도 박지성의 인터셉트에서 시작됐다.

후반 교체때 8만 관중 기립 박수

박지성은 전반 35분 코너킥에서 이어진 볼을 걷어내려던 아스톤 빌라 수비수 게린 매번에게 달려들어 볼을 빼앗았고, 이 볼을 캐릭이 문전으로 크로스하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헤딩으로 골문을 갈랐다.

한편 매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평점을 매기는 영국 축구 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는 이날 박지성이 선제골을 뽑아내고 두 팔을 한껏 치켜들린 장면을 베인 페이지에 올렸다.

스카이스포츠는 박지성이 '초반에 골을 뽑았고 경기 내내 활발히 움직였다'는 평가와 함께 평점 8점을 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골 결정력 부족 더이상 걱정 마"

박지성이 14일 시즌 첫 골을 터트리며 골 결정력에 대한 우려를 일어냈다. AFP 통신은 '맨유가 선두를 지키는데 있어 박지성이 빛났다'며 부상 복귀 이후 최고의 활약을 펼친 '파워 엔진'의 부활을 반겼다.

이날 맨유의 홈 구장 올드 트래퍼드를 찾은 7만 6천73명의 관중은 자신감을 회복한 박지성이 후반 20분 교체 아웃될 때 기립 박수를 보냈다. 7만 6천73명은 지난달 27일 프리미어리그 위건 어슬레틱전 때의 7만6천18명을 넘어선 리그 한 경기 최다 관중 기록이다.

무엇보다 이날의 활약이 의미있는 건 박지성이 골 결정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끝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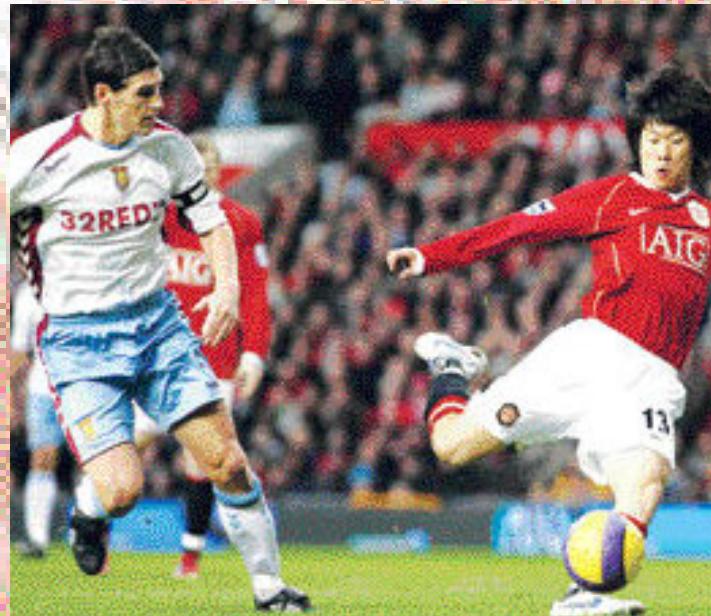
▶ 박지성(가운데)이 14일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톤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 전반 11분 상대 골문을 향해 시즌 첫 골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은 부상 공백을 딛고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 올리는 중이었으며 선발이든, 교체든 꾸준히 출전 경기를 늘려가고 있었지만 '마무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시달려왔다.

지난 2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서는 골대를 맞추는 등 골 운도 따르지 않으며 박지성의 미움을 더욱 편치 않게 했다.

그래서 이번 골은 박지성이 자신감을 되찾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경주 2주 연속 톱 10 청신호

■ PGA 소니오픈 3R

7언더파...공동 8위 올라

위성미 또 컷 통과 실패



최경주가 14일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알레이골프장에서 열린 소니 오픈 3라운드 17번홀에서 티오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아쉽게 컷 통과에 실패하면서 가능성은 인정받았으나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7타차와 4타차로 컷오프됐고, 올해는 출전 이래 최악의 성적을 냈다.

순위를 따지면 위성미는 2라운드 후 실격한 2명을 제외한 142명 가운데 139위. 위성미는 PGA와 유럽 및 일본 등의 투어대회와 한국에서 열렸던 아시안투어 SK텔레콤을 포함해 이번 대회까지 13차례 남자대회에 출전했다.

신인왕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재미교포 앤서니 김(22,김하진)과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도 각각 합계 2오버과 142타로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한편 이 대회에 4년째 출전한 위성미는 처음 나왔던 2004년 1타차



"베컴 美 갤럭시행 톰 크루즈가 조언"

■ 로이터통신 보도

AFP 통신은 베컴이 결혼식에 다녀온다고 팀을 떠난 사이 카펠로 감독이 베컴의 성실성에 의구심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베컴은 올 여름 국내 무대에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겨울 주기로 각 대륙 축구클럽을 초청해 클럽대항전을 열고 있는 피스컵축구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2003년 한 차례 초청한 적이 있는 LA 갤럭시에 베컴이 합류한 만큼 관심을 갖고 이 팀을 초청할 수 있게 여부를 탄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크루즈는 베컴에게 '많은 유명 인사들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파파라치의 눈이 분산되기 때문에 비교적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컴과 아내 빅토리아는 지난 해 11월 이탈리아 로마 근교에서 결혼한 톰 크루즈-케이티 흄스 커플과 질친한 사이로 이들의 성대한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다.

공교롭게도 베컴의 퇴출에 앞장선 파비오 카펠로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베컴에게 불만을 갖게 된 것도 크루즈의 결혼식 참석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동국 英 입단 테스트

프리미어리그 미들즈브러팀

'비운의 스트라이커' 이동국(28·포항)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중위권팀 미들즈브러의 팀 훈련에 합류해 입단 테스트를 받았다.

이동국의 유럽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일레븐매니지먼트코리아 김기훈 사장은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동국이 지난 7일 영국으로 출국해 미들즈브러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며 "현재 입단 테스트를 받는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독일월드컵축구 개막을 앞두고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 독일에서 수술과 오랜 재활을 거친 이동국은 3월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소속팀 포항의 겨울 훈련에 합류하지 않고 미들즈브러 훈련에 참가했다.

이동국의 미들즈브러 입단 테스트로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토트넘), 설기현(레딩)에 이어 한국인 4호 프리미어리그에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사장은 "현지 직원이 이동국과 함께 머물면서 훈련을 도와주고 있다"며 "언제 귀국할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입단 협상이 진전되면 포함 구단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소속팀 포항의 김현식 사장은 "이동국이 영국에서 입단을 위한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구단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전했다.

1876년 창단한 미들즈브러는 137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팀이지만 리그컵에서 한 차례 우승한 것 외에 프리미어리그 우승 기록은 없다. 올 시즌에도 20개팀 가운데 15위로 중하위권에 처져있다.